

동기 3.0 : 나를 직면하게 하는 힘

“이제는 일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존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동기는 내생적이며, 성장지향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진다.”

로마 시내 바티칸 언덕에는 세상의 영향들로부터 독립적인 가톨릭 국가 바티칸시국이 있다. 그리고 이곳 중앙에는 추기경들이 모여 새로운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를 진행하고 교황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기도 하는 시스티나 성당이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정작 사람들의 발길을 붙들고 압도하는 것은 성당 구석구석 가는 곳 마다 눈길을 잡고 호흡을 멎게 하는 미켈란젤로의 벽화들이다. 예술은 이렇게 500년이라는 시간을 가로질러 우리의 가슴을 파고든다.

‘천지 창조’로 잘 알려진 천장 벽화를 보고 있노라면 그 웅장함과 색감, 그리고 섬세함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미켈란젤로는 바닥에서 20미터나 되는 사다리 위에서 4년 동안을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 척추는 휘고, 관절염으로 걷기가 어려웠으며, 얼굴에 떨어지는 물감 안료 때문에 실명의 위기까지 맞았다. 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며 인류의 유산을 완성해냈다. 하루는 점심때가 다 지나도록 천장에 매달려 꿈쩍도 않는 미켈란젤로를 보고 동료가 한마디 했다. “높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뭘 그리 세심하게 그리느냐?” 이때 미켈란젤로는 “남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배고픔과 졸림 등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생물학적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다. 컴퓨터에 비유하면 전원이 들어오면 구동하는 Bios시스템과 같은 것이다. 두 번째 동기는 처벌을 피하고 보상을 추구하는 욕구이다. 일명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기를 말한다. 외생적 동기로서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경험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나 제도적 규범은 오랫동안 이러한 인간적 속성을 통제하는 도구로 기여해 왔다. 컴퓨터에 비유하면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워드나 엑셀과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오늘날과 같은 지식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개인은 지식창출의 주체가 되었고, 창의성은 사회적 부가가치의 핵심이 되었다. 이제는 일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존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다. 컴퓨터에 비유하면 인터넷을 통해 시공간을 넘어 지식을 공유하고 재창출하는 가상공동체의 수준까지 온 것이다. 이러한 동기는 내생적이며, 성장지향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진다. 다니엘 핑크는 이런 종류의 동기를 drive 3.0이라고 불렀다.

미켈란젤로는 당대 최고의 화가가 아닌 조각가였다. 그가 인류 문명사에 빛나는 천장화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일을 소명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걸었기 때문이다. 4년간 천장에 매달려 허리가 활처럼 휘어져도 견디어낼 수 있었던 내면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을 대하며 스스로를 직면하고 있는지, 허리가 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이었는지 내면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James Roh



We Provide The Global Success!
Written by C.E.O James Roh

하나의 작은 꽃을 만드는데도 오랜 세월의 노력이 필요하다. _ W. 블레이크